

애도상담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A Study on Curriculum to Improve Grief Counselor's Competency

전희정

주)삼성물산(건설) 심리상담실

Hee-Chung Jeon(ceacil74@naver.com)

요약

상실은 죽음 뿐 아니라 인생 전환기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주변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애도 상담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문 애도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애도 상담자의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애도 상담 역량 요인을 조사하고, 무엇을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문헌을 검토하고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애도 상담 이론 및 모델, 애도의 평가, 죽음 교육, 상담자 자기-관리로 나누었고 각 교육 내용을 기존 상담교육과정에 통합시키고 경험적 실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애도 상담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애도 상담자 역량 모형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중심어 : | 애도 상담 | 애도 상담 역량 | 상담자 교육 및 훈련 |

Abstract

Loss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death but also the change that take place in the transition of life. In addition, the rate of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death around us has increased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unexpected accidents.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grief counseling and a need for professional grief couns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etency of grief counselors and to review on the literatures what grief counselors should be train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s. Specifically, there were grief counseling theory, evaluation of grief, death education, and counselor self-care. There were suggested that how to integrate into existing counselor curriculum and introduced experiential practice.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encouraging the attention of grief counselor education and competency model.

■ keyword : | Grief Counseling | Grief Counselor Competency | Counselor's Educaion and Training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죽음과 상실을 다루는 애도 상담(Grief Counseling)은 최근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차 노화됨에 따라 주변의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1]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자연적인 죽음 외에 세월호 사건과 같이 사고, 재난 등 예기치 않은 죽음과 상실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접수일자 : 2018년 01월 08일

수정일자 : 2018년 0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2월 06일

교신저자 : 전희정, e-mail : ceacil74@naver.com

14번째 1위, 하루에 35.8명, 1시간 1.49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2]만 보더라도 죽음과 상실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삶 안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경험이다.

애도(Grief)란 상실 경험에서 기인된 슬픔과 고통의 정서이다. 애도는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구별되는 반응을 보이고 개인, 사회, 문화, 역사적 영향을 반영하는 독특하고 다차원적인 반응이다[3].

상실(Loss)은 사별, 즉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여 이혼·이별과 같은 관계상실, 이직·실업과 같은 경제적 상실, 꿈과 미래의 포기 등의 추상적 상실까지 포함한다. 정신질환, 알츠하이머와 같은 정신사회적 상실[4], 직업과 경제적 변화로 인한 상실, 반려동물의 상실,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인한 상실[5] 그리고 인생의 발달과정 중 겪는 전환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분리 경험을 포함시키고 있다[8]. 따라서 인생 전반에 걸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며 그 수요 증가는 애도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담자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시키고 있다.

애도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 과정을 독립된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목의 일부 또는 사별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한정지어 제한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6]. 물론 애도 상담도 일반 상담과 차이가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성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애도는 보편적인 경험임과 동시에 각 개인이 경험하는 상실의 유형,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 감정, 대처방식, 애도의 기간 등에서 차별화 되는 독특한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애도 과정을 통해 상실 이후 삶이 재구성 되고 신념과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복합적인 반응임을 감안할 때, 그 특수성에 요구되는 상담자의 세부적인 지식과 치료 기술, 상담자의 태도 등이 있다.

1970년대 이전부터 서구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 사별, 애도 상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 애도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둔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상담자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상담교육프로그램 인준위원회(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이하 CACREP)의 표준에는 ‘인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위기, 재앙, 외상적 사건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 노력과 교육[7]에 대한 필요성만 기술되어 있다. 즉 위기와 외상에만 초점을 둘 경우 오히려 폭넓게 확대된 상실의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 Doughty 외[8]는 상담학에서 상실과 애도에 대한 교육이 간과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애도 상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Ober외[1] 연구에서는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한 애도 상담 역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스스로는 개인적인 역량은 높게 인식했으나 애도 상담의 지식과 기술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상담자가 애도중인 내담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은 갖고 있지만 애도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애도에 대한 인식은 전문적 훈련과 기술적 역량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교육과 경험적 훈련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애도 상담 훈련은 상담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실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치료계획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그 효과성을 말해주고 있다[1].

최근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1조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역량의 안에서 전문적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9]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우리나라 애도에 관한 초기 연구는 사별(bereavem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족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사별 당시와 그 후 적응 과정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 대한 조력자의 성과에 대한 연구, 죽음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개발·성과에 대한 연구[10]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증가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별 등 대상 상실을 경험한 내담자의 경험과 애도 과정을 대상별로 면밀히 탐색하고 [11-14], 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 검증

연구[15][16], 상실 이후 애도이론의 적용을 통한 내담자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애도 관련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17-19], 상실 이후 삶의 의미와 성장에 초점을 둔 연구[20][21] 등 주제가 광범위해지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대부분 상실과 애도 과정을 경험한 상담의 수요자 즉 내담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애도 상담자의 경험과 전문 역량에 초점을 둔 연구는 단 몇 편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목회상담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주체가 균형을 이루는 작업이다. 그 중 상담자가 상담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22]. 애도 상담 역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상담자의 경험,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해,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애도 상담 요구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애도 상담이 새로운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추가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CACREP의 표준 커리큘럼 안에 이미 기존 교육과정으로 가득 차 있고[23] 애도 상담을 훈련시키는 교수진 역시 동일한 상담 교육을 받았기에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6][8]. 게다가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 가치관의 영향 등의 이유[8],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종교적 이유 등도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Doughty외[8]는 기존 CACREP 표준 상담 커리큘럼 안에 애도 상담을 통합시켜 접근하는 방식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과과정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폭넓은 상실의 개념을 상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내담자를 이해하는 시각을 넓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담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과정 역시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하는 이론 교육과 실습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24][25]. 그 가운데 특정 분야의 상담과정을 독립적인 교과로 채택하여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몇 개 대학교에서 죽음학(Thanatology)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애도 상담이 일부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애도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애도 상담의 창의적 접근 및 기법의 실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2시간 워크숍을 통해 상실 이후 슬픔 그리고 고인과의 지속적 유대(Continuing Bonds)와 치료기법 등의 미재구성이론 강의와 시연(비디오)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죽음과 상실관련한 상담자의 불안 수준이 감소함을 보여준 Doughty외[8]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지만 전문 역량을 키우기에 부족한 시간이었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단 시간의 기술과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담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상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전문화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26].

따라서 본 연구는 애도 상담 영역에서 상담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애도 상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이는 애도 상담 교육과정 모델과 애도상담 역량 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증가하는 애도와 상실 문제에 마주한 상담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애도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선행연구들을 먼저 검토하였다. 선행 문헌은 학술지 위주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학위 논문을 참고 하였다. 국내 문헌의 수가 적어 주로 국외 문헌을 검색하였는데 '애도 상담 훈련(grief counseling training)', '애도 상담 교육(grief counseling education)', '애도 상담 역량(grief counseling competency)'을 주요 검색어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애도 상담 역량과 애도 상담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분화된 교육 내용과 훈련 방법에 대한 문헌은 '죽음교육(death

education)', '상담자 상실(counselor loss)'을 검색하여 보충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애도 상담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애도 상담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지만 애도 상담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먼저, 애도 상담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애도 상담 역량 요인을 살펴 보았다. 그 다음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헌들을 정리하여 공통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방법은 기존 상담자 교육과정 안에 통합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 애도 상담 역량

애도 상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애도 상담 역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량이란 전문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지식의 조합이며[27], 최길성[28]은 그의 연구에서 역량은 지식과 기술적 요소 뿐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험되고 체화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자 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상담자의 자질,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시작으로 점차 특수 분야 상담자의 역량 연구로 구체화되었다[29-34].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중 아직 애도 상담 역량에 대한 연구는 없다. 외국에서도 애도 상담 역량에 대한 연구는 단 몇 편에 불과하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Charkow[35]는 애도 상담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애도 상담 역량 요인을 제시하였다. 구성 요인의 하위 5가지 범주는 개인역량, 기술 및 지식, 평가 기술, 치료기술 및 전문가 기술로 나뉜다. Charkow의 역량 요소 역시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개인역량 영역의 태도와 신념, 가치가 포함되어 비가시적이지만 경험적이고 체화적인 역량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각 구성요인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에 제시하

였다.

표 1. Charkow[34]의 애도 상담 역량 구성요인

구성요인	주요 내용
개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관리 - 애도이슈에 대한 자기-인식 - 유머감각 - 영성 - 죽음과 상실에 대한 개인 철학과 신념
기술 및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애도와 복합애도의 이해 - 효과적/비효과적 대처기술 - 애도 이론을 활용한 사례개념화 - 죽음의 발달적 이해
평가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미해결된 상실을 평가 - 자살 위기 평가 - 영성과 신념의 평가 - 애도의 문화적 영향 평가 - 병원치료 의뢰를 위한 평가 활용
치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과 애도 관련 심리교육을 제공할 능력 - 개인·그룹·가족 대상 애도 상담 능력 - 내담자와 관계형성 - 적극적 경청 - 상실경험의 재구조화 - 애도 상담에서 창의적 예술 기법의 활용 - 치료에 있어 문화적 영향력 확인하기 - 애도 의식을 함께 만들거나 참여하기
전문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 관련 커뮤니티와 학교활동 제공 - 위기 개입 - 학제 간 팀 작업 - 애도에 관한 최근 문헌 조사 - 전문가지식 그룹 참여 등

애도 상담 역량의 구성 요인 중 일반 상담자 역량과는 구별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지식 요인 중 죽음의 발달적 이해는 유년기 발달과정이 거의 모든 심리학과 커리큘럼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반해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인 죽음 관련 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보고 현재의 삶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동시에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상실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철학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 때 내담자의 상실 관련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최근의 애도 이론은 고정화된 단계이론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고유한 상실 경험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을 재구조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들은 애도가 개인의 독특한 경험임을 알면서도 여

전히 단계기반 모델에 따라 내담자를 이해하고 시간적 발달단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와 고인 사이의 ‘관계단절’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6]. Charkow가 전문적 기술에서 지적했듯 상담자들은 애도에 관한 최신 연구와 이론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을 필요로 한다. 평가 기술과 치료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애도의 문화적 영향도 애도 상담자가 지식의 수준을 넘어 평가와 치료에 활용 가능한 경험적 습득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 요소로서 역량을 이해하고 상담자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뒷받침 된다면 애도 상담의 전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2. 애도 상담 교육 내용 및 방법

역량 이해는 상담자가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특징은 이론적 지식 외에도 실천적 지식이 강조되고 기본적인 능력과 직업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 현실사회가 연계된 교육 체제의 구축이 강조 된다[28]. 이제 전문 애도 상담을 위해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Hannon외[37]는 애도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해당 주제는 애도 모델 및 애도의 발달 단계, 애도 경험의 문화적 역할, 상실과 애도에 대한 신체, 정서, 행동, 영적 반응, 개인·그룹·가족의 애도 상담 전략, 그리고 상담자의 자기-관리이다. 애도 상담 교육 필수 내용을 아래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Hannon외[37] 연구의 애도상담 교육 내용

애도상담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 경험의 문화적 역할 - 애도 모델 및 애도 발달단계 - 상실과 애도의 신체, 정서, 행동, 영적 반응 - 애도 상담 전략 - 자기관리

위와 같이 애도 상담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의 필수 주제가 연구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담 교육과

정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Doughty외[8] 그 대안으로 CACREP 기준 내 7개의 상담교육과정(Counseling Curriculum)안에 애도 상담을 통합시켜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Doughty외[8] CACREP교육과정과의 통합 제안

CACREP Standards Counseling Curriculum	Doughty 외 제안한 교육내용	교수 방법
전문상담의 기초와 윤리실천 (Professional Counseling Orientation & Ethical Practice)	상담자 상실경험에 대한 인식 시한부 내담자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	- 윤리교육과정에 통합 - 토론하고 개인적 이슈도 함께 다루기
사회문화적 다양성 (Social & Cultural Diversity)	- 서구vs비서구 문화의 애도 이해 - 애도 평가시 문화적 요소 반영 - 문화 의식(장례 등)과 개인적 의식	미디어의 활용 - 영화, tv, 광고 인터넷 자료 등
인간성장과 발달 (Human Development & Growth)	개인 상실경험에 대한 태도, 신념, 자신의 경험과 의미탐구	스토리텔링 글쓰기 - 집단 토론 상실이 주제가 된 인생곡선 그리기
경력 개발 (Career Development)	- 실직과 직업변화 -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재정적 변화, 가정의 가치관	실직 후 1차·2차 상실평가 및 사례개념화
상담과 조력관계 (counseling & helping relationship)	-위기상담vs애도상담 -위험요인 선별 및 잠재적 탄력성 확인 -임상실습	- 상실의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기 - 상담자 문제가 상담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
그룹 작업 (Group Work)	집단상담 이론과 임상실습	- 애도와 임종에 관한 실존치료기법 - 애도관련 집단 상담 연구를 탐색 등
평가 및 검사 (Assessment & Testing)	애도의 독특함과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평가	- 애도 유형 도구에 대한 평가 및 비판적 시각 기르기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Research & Program Evaluation)	애도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연구조사방법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훈련	-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연습 - 애도 측정도구 활용

본 연구자는 Charkow의 역량, Hannon과 Doughty의 교육내용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공통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 이점으로 작용하는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학습자 즉 상담자의 가치와 신념을 점검하고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포함시켰다.

다음은 연구자 선정한 애도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이다. 첫째, Charkow의 기술 및 지식 영역 중 애도 이론에 대한 지식과 Hannon 의 동료제 제시한 애도 모델 및 애도 발달 단계, Doughty의 상담과 조력 관계 영역 중 위기상담과 애도 상담의 구분을 묶어 애도 상담 이론 및 모델을 정리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은 애도의 고전이론과 최근 애도 이론 및 모델을 정리하였다. 또한 애도 이론과 일반 상담이론을 비교하여 기존 상담 교육과정 안에 통합되도록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제안한 평가 기술이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서의 애도와 개인의 성격, 사회문화적 배경, 성장 배경 등 차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으로서의 애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호소하는 문제 뒤에 숨겨진 미해결된 상실을 찾고 정상애도와 복합애도를 구분하여 상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평가의 내용에서 다루진다. 셋째, 죽음에 대한 개인의 인식, 신념,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죽음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기-관리를 정리하였다.

표 4. 연구자 선정 교육 내용

연구자 선정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 상담 이론 및 모델 ■ 평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의 문화적 영향 평가 - 적응적 애도와 지속 복합애도의 구분 - 애도 측정도구의 다양한 이해와 비평 ■ 태도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에 대한 교육 ■ 상담자 자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의 상실경험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는 4개 영역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기존 상담교육 과정 안에 통합되고 경험실습이 가능한 교육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Doughty외[8]는 교과 과정 중에 다양한 경험적 실습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상실과 애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즉 교육의 다양한 방식은 치료적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담자 자신의 경험이 학습의 주제가 되어 성찰을 유도함과 동

시에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애도 상담의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2.1 애도 상담 이론 및 모델

이론과 모델은 상실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 애도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에는 고전이론에 속하는 애착이론, Kubler-Ross의 단계이론이 있으며, 이후 최근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과 의미재구성이론에 대한 적용이 많아지고 있다. 각 이론에서 설명하는 상실과 애도를 이해하고 치료적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애도 이론의 초기 이론에 속하는 Kubler-Ross의 단계이론은 애도 과정을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5단계로 나누었다. 상실 후 슬픔과 정서를 관찰하여 변화 단계로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도 가치 있게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애도 이론과 모델은 변화했다. 초기 단계이론의 임상 경험이 쌓이고 상담 과정에 적용되면서 이론은 수정되고 발전되었다. Charkow는 애도 상담 역량에서 상담자는 애도에 관한 최근 문헌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길 권하고 있다. 최근의 이론을 익힘으로써 내담자 문제와 역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고 상담과정에서 활용할 다양한 치료적 전략을 배울 수 있다.

초기 이론인 단계 이론은 상실을 겪은 내담자의 정서와 그 변화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 공헌이 있지만 개인만의 독특한 애도 과정이 있음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이중프로세스 모델은 단계이론과 달리 비선형적이고 시간 흐름에 따른 단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모델은 상실 중심 스트레스와 회복 중심 스트레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진동(Oscillation)으로 구성된다. 상실 중심 스트레스는 상실 경험 자체, 고인과 관련된 슬픔, 유대감, 열망, 고통과 관련된 애도 작업이며, 변화에 대한 부인과 회피를 설명한다. 회복 중심 스트레스는 회복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로 인한 2차적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과 대처를 다룬다 [38]. 즉 상실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 변화된 역할, 경제적 문제, 새로운 일의 부과, 가족 구성원과의 변화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 Stroebe의

[38]는 이 모델의 핵심은 진동이며, 상실 중심 대처와 회복 중심 대처 사이를 오가는 역동성을 중시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대처라고 제안했다.

의미 재구조화 이론은 상실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애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39]. 상실의 범위가 인간 삶의 전환 국면마다 생기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상실은 지속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설계하는 과정임을 알아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이야기(self-narrative)로 만든다[40]. 즉 애도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상실이 죽음 또는 사별이라면 의미재구성 이론에서는 고인과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유대로 통합하는 관계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이론과 모델에 대한 학습은 상실과 애도에 대한 고전 이론 즉 단계이론, 과제모델에 대한 토론과 비평[8]을 통해 각 이론의 특징과 제한점에 대해 학습한다. 이론과 모델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담 교육과정 내에서 일반 상담이론과 애도 이론이 어떻게 공조하고 유사하며 구분되는지 익히도록 제안하였다. 단계이론과 인간중심이론, 이중과정 모델과 게슈탈트 이론, 의미재구성 이론과 실존주의 상담, 이야기 치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계이론은 슬픔에서 보이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의무처럼 경직되어 있고 선형적 발달 모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경험과의 접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 상담은 죽음에 관한 사건에 개인적인 반응과 행동의 주관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23]. 이중 프로세스 모델은 게슈탈트 이론의 지각의 분리 즉, 전경과 배경과 유사하여 함께 설명될 수 있으며, Doughty 외[8]는 진로상담 교육과정에서 실직을 하나의 상실로 보고 실직의 슬픔에 대처하고 고용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상실 및 회복 중심 스트레스 이론으로 평가하고 상담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직과 관련된 1차, 2차 상실을 평가하고 사례개념화 실습을 포함시켰다.

의미 재구조화 이론은 이야기 치료와 실존주의 상담

이론, 인지행동 치료와의 비교, 통합이 가능하다. 의미 재구조화 이론의 치료 기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는 상실에 대한 기억과 생각, 감정을 표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신의 신념을 재형성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 치료의 기본 과정과 동일하다. 즉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실존주의 상담은 존재론적 경험과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상의 확장된 앎,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 현실개념에 근거한다는 면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 내담자의 극단적인 견해에 도전하기, 새로운 경험을 동화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기존 가정을 수용하는 과정 등은 인지행동치료와 연관성을 지닌다. 애도 이론은 그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 상담이론과정과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2.2 애도 평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정상적 애도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상애도와 구별되는 지속적 복합애도 장애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과 정신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는 반응을 보인다. 최근 DSM-V에서는 독립적 진단 기준이 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성 복합애도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를 추가 시켰다. 정상 애도 외에 지속적 복합애도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기에 애도 상담자는 정상 애도와 복합애도를 구분할 수 있는 임상평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애도를 측정, 평가하는 도구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애도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측정도구는 없다[8]. 애도 관련 측정도구를 많이 아는 것보다 애도의 독특성, 개인의 구별되는 애도반응과 대처, 애도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담자의 애착유형,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애도에 영향을 준 요인, 가족의 지지체계, 과거의 미해결된 상실경험 등 종합적인 평가 과정을 배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는 이미 만들어진 측정도구를 먼저 이해하고 평가하며, 덧붙여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8]. 또한 다양한 측정도구, 심리검사 평가와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다.

애착 유형은 정상애도와 복합애도를 예측하며, 예후를 가능할 수 있다[40]. 상실이후 정상애도의 강도를 벗어나 불안정한 애도 반응에 대한 위협요인을 선별하고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는 내담자의 회복탄력성 요인 역시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41].

애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인의 상실과 애도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영화는 훌륭한 교육적 도구가 된다. 비교 가능한 동서양 문화권에서 사람들의 슬픔 반응을 영화, TV시리즈, 광고 등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고 개인의 애도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기 방식을 취할 수 있다[8].

또한 Reeves[42]는 그 문화가 속한 장례식, 추도식 같은 문화적 의식 안에서 개인만의 의식을 만들고 계획하는 것은 내담자의 특이한 애도 과정을 인정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실 경험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실제 자신의 상실을 해석하고 애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에서 연로하신 어른의 죽음에 호상(好喪)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무시하는 말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슬픔을 억압하거나 서둘러 극복하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소연[43]은 그의 연구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고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족 고유의 규칙이나 믿음을 토대로 사별 경험과 관련된 의미를 찾게 되고 서로 공유한다고 소개하였다. 덧붙여 사별 경험자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경우 고인과의 지속적 유대감, 개인적 성장, 인생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은 무의미함과 공허감을 갖게 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지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별경험자의 인지적 과정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죽음에 대한 교육

죽음 교육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애도 상담에 임하도록 돕는다. 서구 죽음교육의

가장 큰 공헌자로 1950년대 Herman Feifel을 꼽는다. Wass[44]는 그를 “최초의 현대적 죽음 교육학자 였다”라고 소개하였다. Feifel은 죽음의 학문적 성격을 알리고 죽음을 공론화 시켰으며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44][45]. Wass[44]는 Feifel의 죽음교육의 목표는 죽음에 대한 지식습득, 자기-이해, 가치관, 의미, 태도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1976년 창설된 죽음 교육 및 상담학회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 이하 ADEC)에서 타나톨로지(Thanatology)라는 죽음학을 다루고 있다. 타나톨로지는 ‘죽음인식, 죽음의 준비, 죽어가는 사람을 돌봄, 임종을 앞둔 자와 돌보는 사람의 관계 정립, 미해결한 관계의 해결, 직면한 죽음에서 희망 찾기,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학문으로 개념화 된다[45]. 우리나라의 죽음교육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후반 이후로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교육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 들어 죽음 교육을 다루기 시작했다[46].

상담영역에서 죽음의 이해와 교육의 필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현실의 삶의 의미와 태도를 전환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47]. 이는 죽음을 단순히 단절 또는 종결의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있음에도 심리학과 내에서 죽음교육에 대한 교과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교수의 부족, 죽음 인식에 관한 부정적 문화, 죽음에 대한 종교적 시각에 내재된 논란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함[48]과 자격증과 연결되는 다른 학문 영역과는 달라서 교과에 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49]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 시각과 제한적인 여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담자 대상의 죽음교육 이후 긍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연구물이 있어 그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보아

야 한다. Harrawood[50]는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8일간 30시간의 죽음 교육을 실시 한 결과, 개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신념을 더 깊게 이해하고 죽음 관련 문제를 덜 불안해하며, 편안함과 대처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은주 외[49]는 참여한 대학생들이 상실 경험 이후 현재 삶이 중요하다는 것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죽음 교육이 삶을 충실하고 보람되며 완성적이고 성숙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도울 것이라 기대하였다. 유사하게 죽음교육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51],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며,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훨씬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참여하는데 있어 두려움이 줄어들었다[52]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도 상담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상실은 아마도 사별을 겪은 내담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교육은 상담에서 안정적이고 수용적이며 공감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상담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50]은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Harrawood[50]의 죽음에 대한 교육

회기	주제와 활동 내용
1일	죽음과 애도에 관해 왜 학습이 필요한가? 태도와 경험, 개인 성찰 상담자 자기-관리
2일	미디어, 문학, 종교와 환경을 통한 죽음의 이해 일반적인 상실 애작, 사별, 애도, 애도의 증상
3일	애도 - 단계와 과업이론 애도의 중재 장례 문화와 의식, 초대강사 : 장례지도사
4일	현장체험 : 장례식 참석 전 생애에 걸친 애도의 이해 죽음과 애도에 대한 다문화적 차이
5일	애도 상담, 애도 상담의 원칙, 절차와 기법 역할극 그룹 애도 상담
6일	복합애도와 애도 상담 진단상의 차이와 역할극
7일	초대 강사 : 호스피스 대표 애도와 가족체계, 애도와 지역공동체
8일	소진 과정 종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대를 포함한 5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죽음교육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전문가 과정은 ADEC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과정 중 중요주제 즉, 임종, 상실, 슬픔과 애도, 외상적 죽음을 중심으로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주제를 함께 교육하고 있다[45]. 표준 죽음교육 전문가 과정[45]의 주요 주제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표준 죽음 교육 전문가 과정

차수	주제
1차	죽음과 임종
2차	상실, 슬픔과 애도(Loss, Grief and Mourning)
3~5차	유년기, 청소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죽음
6차	자살 및 재해로 인한 죽음
7차	불교철학으로 본 죽음관
8차	인간사후에 관한 종교학적 고찰
9차	반려동물 상실 및 애도
10차	의료 윤리
11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12~14차	죽음교육 (이론, 체험, 실습)
15차	정리 및 수료

죽음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 목표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방식 역시 중요하다. 죽음 교육이 경험적 활동이 동반된 교육이 아니라 지식 위주의 교수법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정보가 정서적 경험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제공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53]는 결과 역시 개인의 성장이 동반되는 체험 위주의 교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토론과 사례중심으로 구성될 희망하고[49] 장례식, 추도식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토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호스피스 강사를 초청하는 등의 체험 과 경험 위주의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50]. 체험 위주의 학습활동은 슬픔의 깊이, 애도 반응의 공감 등 상실 경험 내담자의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접할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이해하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4 상담자의 자기 관리

애도 상담에서 자기 관리는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초점이 되며 상담자의 상실경험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인식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Doka[4]는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란 사회적으로 묵인되거나, 공식적으로 애도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없을 때 경험되는 슬픔”으로 정의했다. 그 중 상담 관계와 내담자의 죽음을 소개하였다. 내담자와의 상담 종결이나 내담자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애도할 당사자인 상담자가 슬픔과 상실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된다.

만약 상담자가 상실을 미해결한 채 상담에 임한다면 치료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54] 작업동맹이 붕괴되고 회피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상담자 자신의 상실로 인해 내담자의 모든 이야기를 ‘상실’의 문제로 보는 경향[55]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담자의 미해결된 상실 경험이 상담과정 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상담자가 가족이나 친족 등 중요한 대상을 상실한 경우,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고 치료과정 중 내담자를 향한 분노, 과민함, 오히려 내담자에게 지지를 얻고 싶은 태도, 치료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실 경험에 매달리는 모습 등을 보인다[55-57]. 이 경우 내담자의 최우선 복지를 해하거나 전문가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살 또는 사망을 겪을 경우,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Adelman[58]은 이 경우 내담자와의 애착의 깊이와 슬픔이 자신의 미해결된 역전이와 복잡하고 미묘한 경계의 문제를 암시할 것을 염려하여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한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ADEC의 윤리강령은 회원이 개인적인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해 상담 활동 유능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상담 및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9]. 최근에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

자신의 전문적 능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 상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적 문제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나 전문적 자문을 받을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9].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Kouriatis외[55]는 그의 논문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상실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했을 때 애도 중인 내담자에 대한 공감감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대감, 상실과 애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문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담자의 상실 경험이 애도 상담의 유용한 성찰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학회의 윤리강령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처럼 자신의 상실 경험이 성찰적 지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문 수퍼비전과 개인 상담이 추천된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삶 이외에 개인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사교적인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60].

Doughty외[8]는 상담자 교육과정 안에서 개인적 상실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 이제까지 경험한 상실, 타인의 상실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 죽음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주제를 글쓰기와 자기-이야기로 만들어 집단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한 미해결된 상실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상실’을 주제로 한 인생곡선을 그려 자신의 삶에서 상실을 확인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II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애도 상담자의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애도상담 역량 요소를 개인역량, 지식과 기술, 평가 기술, 치료기술, 전문가 기술로 나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는 애도 상담자를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정리하고 애도 역량의 세부내용과 공통되는 주제를 뽑아, 애도이론과 모델, 애도의 평가, 죽음에 대한 교육, 상담자 자기관리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해림[25] 외의 연구에서 분류된 과목 범주를 기준으로 기존의 교과과정에 통합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전공 범주의 주요 상담 이론과목과 모의 상담 과정의 시연 과목에 애도이론과 모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애도의 고전 이론인 애착이론은 기존 상담 이론에서 다루고 있기에 추가적인 애도 내용을 함께 다룰 수 있다. 또한 단계이론, 이중과정 모델과 의미재구성 이론을 기존의 상담이론, 즉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실존주의 상담 이론과의 비교를 통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각 이론별로 제시하는 치료기법들을 상담자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시연과 실습을 통해 체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내담자 상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상담 관련 범주의 검사 및 측정 과목에서 애도 평가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정상애도와 지속적 복합애도의 구분, 애도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영향의 파악, 개인의 애착유형, 미해결된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 중에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효과는 미비하며, 지속적 복합애도의 경우 치료적 개입이 유용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애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담계획과 개입전략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셋째, 기타 과목 범주의 사회심리, 교육심리 과목 등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다룰 수 있다. 애도 상담자는 죽음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가치관의 확인을 통해 죽음과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수용적이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지식과 자기 이해,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는 목표 아래 글쓰기, 자기-이야기 등 체험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진행될 때 효과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 과정 중 상담자 자기분석 또는 구조화된 집단상담 실습 등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통찰 등을 다루는 교과 과정 등에 포함시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실습훈련 범주 안에 상담 수퍼비전, 인턴십 등의 과목에서 상담자의 자기-관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상담자의 광범위한 상실 경험을 주제로 하여 상담 과정 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 성찰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내담자와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고 더 공감적으로 대하여 애도와 상실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많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애도와 상실에 대해 상담자가 어떤 준비와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그 교육과 훈련의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애도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의 장이 마련될 필요성을 알리고 애도 상담이 상담 교육과정 안에 자리매김 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애도 상담을 진행 중인 상담자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애도 상담의 연구 대부분이 내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매우 불균형적인 연구 형태로 추후에는 애도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심층 면접하여 애도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내용과 상담자의 요구와 기대를 확인한다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애도 상담 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상담자가 인식한 애도 상담 역량과 상담자의 연령, 성별, 종교유무, 상담자의 실무경험, 애도 상담 경험의 유·무, 애도 교육의 참여 경험, 상담자 상실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련성을 이해하여 교육의 대상과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애도 상담자 역량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많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관련한 전문 상담기관도 개소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원모집을 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역량 모형은 상실과 애도 상담에 적합한 선발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애도 상담에서 중요한 평가 및 내담자 이해의 요소로 활용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외국 문헌의 자료를 바탕

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실제 한국 문화권 내에서 애도, 장례, 가족과 사회의 지지와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내담자의 상실과 대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지지체계의 역할과 구체적 활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A. M. Ober, D. H. Granello, and J. E. Wheaton, "Grief Counselors' Training, Experience, and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90, No.2, pp.150-159, 2012.

[2] <http://kosis.kr/>

[3] K. M. Humphrey, *Counseling strategies for loss and grief*,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9.

[4] K. J. Doka, *Disenfranchised grief: Recognizing hidden sorrow*, New York, NY: Lexington Books, 1989.

[5] J. W. Worden,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NY:Springer, 2009.

[6] K. M. Humphrey, "Grief counseling training in counselor prepar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port,"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16, No.4, pp.333-340, 1993.

[7] <http://www.cacrep.org/>

[8] Elizabeth A. Doughty Horn, Judith A. Crews, and Laura K. Harrawood, "Grief and loss education: Recommendations for curricular inclusion,"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Vol.52, No.1, pp.70-80, 2013.

[9] <http://www.kr CPA.or.kr>

[10] 이은주, 조계화, 이현지 "사별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Vol.8, No.3, pp.839-857, 2007.

[11] 최승이, "엄마를 상실한 중년여성의 애도 경험,"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Vol.22, No.4, pp.637-653, 2011.

[12] 이경미, 최연실,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Vol.23, No.4, pp.655-686, 2015.

[13] 손수민, "아버지 사별을 경험한 유아의 애도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1, No.9, pp.55-83, 2017.

[14] 서청희, 김경미, "자살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의 애도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24, No.9, pp.55-83, 2017.

[15] 송수지, 강영신, "관계상실을 경험한 청소년 대상 TF-CBT기반 애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9, No.2, pp.357-382, 2017.

[16] 조선희, 강영신, "애도 회피에 따른 침묵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7, No.3, pp.641-663, 2015.

[17] 강현경, "부모용 유아 애도과정 척도의 타당화," *한국영유아보육학*, Vol.92, pp.127-149, 2015.

[18] 황정운, 김미옥, 천성문, "성인용 애도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Vol.21, No.3, pp.537-560, 2014.

[19] 최선재, 안현의, "상실경험의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Vol.14, No.1, pp.323-341, 2013.

[20] 임선영, "외상적 관계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5, No.4, pp.745-772, 2013.

[21] 한정숙, 최윤경, "이혼 경험자의 인지적 유연성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Vol.14, No.2, pp.217-237, 2014.

[22] 주은선, 박영주, "상담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상담성공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4, No.2, pp.453-484, 2015.

[23] Heather L. Servaty-Seib and Sara J. Tedrick

- Parikh, "Using service-learning to integrate death education into counselor reparation," *Death Studies*, Vol.38, No.3, pp.194-202, 2014.
- [24] 도상금, "상담가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5, No.1, pp.13-29, 1993.
- [25] 최혜림, 김영혜,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8, No.4, pp.713-729, 2006.
- [26] 김진숙, "상담자 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4, pp.813-831, 2005.
- [27] 장세미, 장성숙, "상담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수퍼바이저 역량요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4, pp.488-502, 2016.
- [28] 최길성, "역량 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0, pp.464-478, 2010.
- [29]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청소년 상담교육과정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 [30]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상담자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발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6권, 제2호, pp.161-182, 2003.
- [31] 김영석, "기업체에서의 상담활동(기업체 임직원 반)," *상담과지도*, 제43권, pp.301-307, 2008.
- [32] 남현주, *기업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33] 조수연, 양미진,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연구*, Vol.21, No.2, pp.59-75, 2013.
- [34] 김봉환, "조화와 통합지향 카운슬링을 위한 상담자 역량 탐색,"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697-2713, 2012.
- [35] W. B. Charkow, *Family-based death and grief-related counseling : Examining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factors that impact counselor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2002.
- [36] L. J. Breen, "Professionals' experiences of grief counseling: Implications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Omega:Journal of Death&Dying*, Vol.62, No.3, pp.285-303, 2011.
- [37] M. Hannon and B. Hunt, "Training students to provide g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or Preparation and Supervision*, Vol.7, No.1, pp.83-95, 2015.
- [38] M. Stroebe and H. Schut,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Vol.23, No.3, pp.197-224, 1999.
- [39] R. A. Neimeyer, "Narrative strategies in grief therapy,"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Vol.12, No.1, pp.65-85, 1999.
- [40] 한국상담심리학회, *애도상담의 창의적 접근 및 기법의 실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4.
- [41] A. D. Mancini and G. A. Bonanno, "Resilience in the face of potential trauma : clinical practices and illustr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2, No.8, pp.971-985, 2016.
- [42] N. C. Reeves, "Death acceptance through ritual," *Death Studies*, Vol.35, No.5, pp.408-419, 2011.
- [43] 정소연, *사별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의미재구성이 복합애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44] H. Wass, "A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Vol.28, No.4, pp.289-308, 2004.
- [45] 임병식, 신경원, *죽음교육교본*, 가리온, 2017.
- [46] 이동운, 강선보,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원*, Vol.29, No.1, pp.113-137, 2016.
- [47] 임진옥, "죽음이해를 통한 상담의 교육적 필요성과

과제,” 에니어그램연구, Vol.3, No.2, pp.145-157, 2006.

[48] L. M. Eckerd, "Death and dying: Course offerings in psychology: A survey of nine midwestern states," *Death Studies*, Vol.33, No.8, pp.762-770, 2009.

[49] 이윤주, 조계화, 이현지, "주변 사람의 죽음이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Vol.13, No.1, pp.113-124, 2005.

[50] L. K. Harrawood, E. A. Doughty, and B. Wilde, "Death education and attitudes of counselors-in-training toward death: An exploratory study," *Counseling and Values*, Vol.56, No.1, pp.83-95, 2011.

[51] 김은희, 이은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Vol.39, No.1, pp.1-9, 2009.

[52] W. Wong, "The growth of death awareness through death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Hong Kong," *Omega: Journal of Death & Dying*, Vol.59, No.4, pp.113-128, 2006.

[53] C. J. Magliola and S. E. Robinson,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 A metaanalysis," *Omega: Journal of Death & Dying*, Vol.29, No.4, pp.319-335, 1994.

[54] J. A. Hayes, Y. Yeh, and A. Eisenberg, "Good grief and not so good grief : Countertransference in bereavement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3, No.4, pp.345-355, 2007.

[55] K. Kouriatis and D. Brown, "Therapists' bereavement and loss experiences :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Loss and Trauma*, Vol.16, No.3, pp.205-228, 2011.

[56] J. Rappaport, "Traumatic time: The therapist's mourning,"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the Postgraduate Center for*

Mental Health, Vol.17, No.1, pp.55-64, 2000.

[57] M. Vamos, "The bereaved therapist and her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47, No.2, pp.296-305, 1993.

[58] Anne J. Adelman and Kerry L. Malawista, *The Therapist in Mourning*.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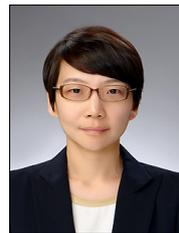
[59] <https://www.adec.org/>

[60] P. Henderson, "Bereavement and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Therapy Today*, Vol.16, No.7, pp.30-32, 2005.

저 자 소 개

전 희 정(Hee-Chung Jeon)

정희원



- 1997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학사
- 1999년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상담 전공, 석사
- 2010년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 및 교육심리 전공, 박사수료

- 1999년 9월 ~ 2001년 7월 : 신사중합사회복지관 심리상담실 상담원
 - 2001년 10월 ~ 2002년 11월 : 고양시청소년상담실 상담원
 - 2002년 12월 ~ 2009년 6월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
 - 2009년 7월 ~ 현재 : 주)삼성물산(건설) 마음뜨락 심리상담실 상담실장
- <관심분야> : 상실과 애도, 기업 상담